

## 엑팟 코리아, 정부에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촉구

지난해 대규모 국제경찰 협력 수사를 통해 다크웹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가 적발되어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발견되고 38개국에서 3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이 검거되었다.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4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죄로 한국인 남성이 검거되었으나,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그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해 한국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웰컴투비디오는 128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22만 건이 넘는 아동 성학대 영상을 배포했다. 이 페이지의 한국인 소유주는 이용자들에게 성인 포르노는 공유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으며(이미지 참고), 피해자들 중 많은 수는 2살이 채 되지 않았다.

## Welcome to video

Upload videos

Description or keyword:

At least 15MB, Max 1900MB also selectable up to 10 videos

Browse...

No files selected.

Note:

Click the button only once.

Wait for message to success upload.

Do not upload **adult porn** over the age of **15**

Upload

©NCA

한국인 남성은 웹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았으나, 법원이 그가 아동 성학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아 그의 처벌은 징역 18개월에 그쳤다. 동시에 워싱턴 DC의 연방 대배심은 엄청난 영상 보유량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아동 성착취 시장”을 운영한 죄로 그를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는 그가 형량을 마치는 2020년 4월에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법에 의해 요청이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국 내에서 분노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CPAT 회원인 탁틴내일(ECPAT 코리아)는 한국정부에게 이 남성(손씨)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조사할 것과, 온라인 아동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에게 마땅한 형량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ECPAT 인터네셔널은 위 문제에 대한 ECPAT 코리아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토마스 뮐러(Thomas Mueller), ECPAT International 부대표는 이에 관해 “지난해 웰컴투비디오 검거 관련으로 탁틴내일에서 주관한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한국에 방문했다”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이후 한국정부는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발생하기도 하는 수많은 성착취와 성학대 사례들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중대 조치로서 의제강간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 각국의 범죄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한국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충분한 법적 허점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성착취 문제에 대한 피해자-중심 접근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동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오랫동안 고심하게 만드는 의미있는(significant)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원본링크:

<https://www.ecpat.org/news/w2v-ecpat-korea-urges-government-to-investigate/>